



팬 간담회 회의록

일시	2023년 5월 17일 19:30	
참석자	천안시민프로축구단 박남열 감독, 사무국장, 홍보마케팅팀 차장	
	천안시티FC 팬	
목적	경기 관련 의견 수렴 및 팬 질의응답	
주요내용	내용	비고
	<p>(선수명이 직접적으로 언급되는 질의응답은 회의록에서 생략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p> <p>박남열 감독: 좋은 일로 팬분들을 만났어야 하는데 죄송하다. 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의견 말씀해 주시면 우리 팀이 잘될 수 있도록 반영하여 준비하겠다. 1라운드가 끝났는데 팬분들께 드릴 말씀이 없다. 핑계뿐이겠지만 더 나은 경기력 보일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죄송하다. 말씀드려보자면 시즌 준비가 늦게 시작됐다. 선임도 늦었고, 선수 영입 과정도 늦었다. 스스로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선수들을 보고 선택했지만 선택의 폭이 넓지 못했다.</p> <p>1. 부임하고 나서 어떤 스타일의 경기를 보여주려고 한 것인가? - 저는 MF, 공격수 출신으로 빌드업을 통한 공격적인 축구를 구상했다. 동계 때도 그렇게 훈련을 했다. 연습 경기로 맞춰 가야 했다 보니 선수들이 호흡을 맞출 시간이 넉넉하지 않았고, 고민이 많았다. 시즌이 시작된 후 준비했던 것이 안 됐고, 수비적 경기를 하기보다 공격을 하면서 수비 안정화를 찾고자 했다. 4백을 선택한 이유도 그러하다. 하지만 구성면에서 아쉬움이 있다 보니 수비적으로 변화되어가고 있다.</p> <p>2. 선수 구성의 문제였나? - 선수들이 서로 호흡을 맞출 시간이 적었기에 세부적인 면에서 미스가 나오고, 자꾸 지다 보니 아무래도 소극적으로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p> <p>3.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 자신감을 찾는 것이 가장 우선이다. 1승만 하면 우리도 자신감을 찾을 수 있을 것이고 돌파구가 생길 것이라 본다. 한 번만 이긴다면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선제골 상황에서도 자신감을 갖지 못하는 부분, 후반에는 더 위축되면서 수비적으로 하는 게 반복되고 있어 멘탈적인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p> <p>4. 선수들이 승리로 자신감을 찾는 것도 좋지만 이기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어떻게 자신감을 찾게 할 것인가? 멘탈 관리를 위한 외부강사 초청 등을 준비하는가? - 감독으로서 부족한 측면이라 생각해 구단에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했다. 제가 해주지 못한 부분을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 멘탈적인 측면에서 보다 세밀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 패배의식을 빨리 깨고 나가면 좋겠다.</p> <p>5. 공격, 미드필더, 수비 중 가장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 수비가 부족하다고 본다. 공격적으로 하려면 수비에서 안정감이 있어야 하는데 수비가 안</p>	



팬 간담회 회의록

정적이지 않다. 수비수에 부상자가 많아진 것이 아쉽다. 임대 선수 관련해서는 다른 팀에서 다른 색깔의 축구를 했던 선수들이기에 제 스타일에 적응하고 조화를 맞추는 데에 시간이 걸린 것 같다. 부상 선수도 있고 여름 선수 보강 등도 있으니 알려드릴 사항이 생기면 구단을 통해 알려드리겠다.

6. 5라운드까지의 경기와 5라운드 이후의 경기에서 수비 구성이 다르다. 수비를 맞춰나가고자 그리 한 것인지, 부상으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는지.

- 정확한 부상 일자를 확인해 봐야겠지만 부상으로 인한 변화가 있었다. 선수를 활용해가며 가장 좋은 조합을 찾아가면서 부상도 생겼다. 지금 상황에서도 있는 선수들을 통해 안정적인 수비와 빌드업이 가능해야 한다고 본다.

7. 동계 전지훈련 때 선수 구성은 어느 정도 완성된 상황이었나?

- 90% 정도였다. 그 정도 시점이면 사실상 더 이상의 영입이 어렵다. 다른 팀과 경쟁해서 선수를 데려올 수는 없고 빠르게 선점했어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늦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8. 수비 불안에서 부상 언급은 핑계처럼 들린다. 포지션 변경한 선수들이 기량 부족으로 느껴진다. 발전된 모습을 보여 줄 방법이 있는가?

- 훈련으로 해결해야 한다. 우리가 다 바꿀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있는 자원 안에서 어떻게든 발전시키고, 포지션이 바뀐 선수들은 훈련을 통해 갖고 있는 능력을 더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9. 아무리 선수가 없다 하더라도 시즌 중 부상으로 아웃되는 경우도 많은데 왜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인지.

- 납득할 수 있는 선수들을 선택해야 했고,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었다.

10. 경기 70분 이후 상황이 바뀌는 경우가 많다. 패색이 짙은 상황에서 패배 의식이 느껴진다. 선수들이 만회할 상황을 만들려는 모습이 부족하고, 벤치도 조용했다. 왜 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들 쳐져 있는 것인가.

- 죄송하다. 저도 이기고 있다가 역전되면서 보이지 말아야 할 모습을 보인 것 같다. 안타깝게워서 그랬던 것인데 그런 모습 다시 보이지 않도록 주의하겠다.

11. 0:0이나 0:1 상황일 때는 선수들이 뭔가 해보려는 모습이 보이는데 2점 차만 나도 자신감이 떨어지는 모습이 보이고 실수도 많이 하는 것 같다. 감독님도 리더로서 그라운드 밖에서 지휘를 하시지만 선수들 중에서 파이팅을 외쳐줄 선수들이 보이지 않는다. 이기면 좋겠지만, 지더라도 우리가 이렇게까지 노력한다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진다면 그래도 괜찮을 것이다. 그라운드 내에서 분위기를 추스르고 다스릴 선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지도자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을 전부 말씀해 주셨다. 저희도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 연패가 이어지면서 선수들에게도 그 부분을 고쳐나가자고 계속 말해왔고, 조금씩 고쳐나가고 있다.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 제 마음과 다르게 선수들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어려움이 있



팬 간담회 회의록

을 수 있다. 저도 그 부분이 안타깝다. 골을 먹었을 때 만회하고자 더 행동하고 보여주는 모습이 필요하다. 훈련을 통해 노력하고 있다.

12. 중간에 주장이 바뀐 이유가 궁금하다.

- 이전 주장도 자기 역할을 잘하고 열심히 하는 선수인데 주장이라는 타이틀에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좀 더 나이도 있고 경험도 있는 현 주장으로 교체했다. 현 주장에게 팀에 파이팅을 불어넣고 때론 싫은 소리도 할 수 있도록 말하고 있다.

13. 선수들의 의견을 따라가는 것인지, 감독님의 의지를 많이 반영시키는 것인지.

- 강요하지 않는다. 포지션도 원하는 포지션을 2개씩 말하라고 이야기한다. 서울이랜드전 PK의 경우 제가 지시했다.

14. 간담회를 통해 감독님 성향을 알게 된 것, 오해를 풀 것은 좋다. 이 질문을 꼭 하고 싶었는데 모 팀들은 책임을 지는데 다른 감독들의 경질, 사퇴를 보며 어떤 생각을 했는지. 우리는 승점 1점에 꼴찌 아닌가.

- 드릴 말씀이 없다. 죄송하다. 7월 이후, 올 시즌이 끝난 후 평가를 받고 책임질 부분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핑계이지만 제가 가질 수 있었던 시간은 준비기간부터 너무 짧았다. 워낙에 성적이 안 좋다 보니 죄송하다. 더 이상 선수들을 크게 바꿀 수는 없고 여건상 이 선수들과 한 시즌을 끌고 가야 할 것이다. 다만 시즌을 끝내고 평가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제게 주어진 시간도, 선수들을 선택하기도 어려운 점이 있었다.

15. 시민구단이라 예산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 알고 있었을 것 아닌가.

- 그런 부분을 알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다. 납득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고, 그래도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 팬분들의 의견을 듣고, 이런 자리도 한 번으로 끝내지 않고 지속할 것이다.

16. 팬들이 라이벌이라고 생각하는 팀에 대해 인터뷰 등에서 강하게 어필해줄 수 있나.

- 강하게 하도록 하겠다. 여러분들의 의향을 잘 알았기 때문에 잘 준비해서 결과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 응원해 주시고 선수들 독려해 주시면 좋겠다. 질타도 응원도 다 달게 받겠다. 부족하게 시작했지만 채워나가고 있다. 한번 치고 나가는 것이 어려운데 그걸 넘어서려고 노력하고 있다. 홈에서 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자 하는데 위축되는 부분이 있다.

17. 현재까지 8골을 넣었는데 감독이 원하는 모습의 골이라고 생각한 것이 있었는지.

- 간결하고 깔끔한 골, 개막전 김주환의 패스에 이은 모따의 골이 그런 모습이었다. 그 후로 잘 나오지 않아 아쉬움이 있었지만, 개선시켜 나가야 할 부분이다.

18. 특정 선수들에 대한 전술, 패턴에 대한 질의

- 선수들 스스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수년간 해온 스타일이 있어 지속적으로 훈련을 통해 주입하고 있다. 몸에 밴 것이라 변화가 쉽지 않다. 인지하고 있지만 경기장에 들어가면 습관이 또 나오기 마련이다. 고쳐가는 중이다.



팬 간담회 회의록

19. 선수들 간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고 있는지

- 주장이 고참들과 미팅도 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안다. 선수들끼리 잘 지낸다. 식사 시간, 운동 시간 등에 체크를 하는데 트러블 없이 잘 지낸다.

20. 두 번째 라운드 로빈 성적 어느 정도 기대하나?

- 일단 당장 다음 경기만 보고 준비하겠다. 우리가 어떤 팀을 이겨야 하는지 제 나름의 생각은 있으니 승점을 쌓고 이길 팀들에 대한 전략을 세우겠다. 저도 느낀 것이 있어 전략적으로, 기술적인 변화도 하면서 준비해 나가겠다.

21. 성적은 좋지 않고, 시 지원은 한정적이고, 대한민국축구종합센터 때문에 프로팀이 된 구단이기도 하다. 내년에 지원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좀 더 부담감을 가져주셨으면 한다.

- 그런 일이 없도록, 첫 스타트를 끊는 입장으로 선수단 전체가 시민분들께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도록 하겠다. 우리가 어떤 축구를 하고자 하고 어떤 지향점을 향해 가고자 하는지 보여드리겠다. 꼭 필요할 때는 요청하시면 여러분들의 의견도 이렇게 수시로 듣고 말씀드리면서 궁금하신 점 풀도록 하겠다. 선수들에게는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선수들도 부족한 점 고치고자, 좋은 경기력을 보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한 번 기회가 생기면 분위기가 확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말 죄송하다.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됐다.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여러분들의 생각도 충분히 알았기 때문에 더 다잡고 선수들과 잘하도록 하겠다.

22. 지난 경기에 팬-감독 간담회 이야기가 나왔는데 빠르게 임해주셔서 감사하다. 2라운드 로빈 돌입하는데 일부 팀과의 경기에서는 꼭 좋은 결과를 내주셨으면 한다. 최종 목표 한 자릿수 순위도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 팀이 지금은 침체되어 있지만 고춧가루는 뿌릴 수 있는 팀이 되었으면 한다. 2라운드 로빈 끝나고, 혹은 상반기 끝나고는 좋은 일로 간담회 혹은 팬 미팅 등을 할 수 있길 부탁드립니다. 1라운드 로빈 결과를 토대로 서포터즈는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행동을 할 것이니 그 부분은 감안하셨으면 한다. 저희는 정말 열심히 서포팅하고 있으며, 구단을 사랑하는 점 알아주셨으면 한다. 선수단에게도 저희의 노력이 전달되었으면 한다.

- 팬분들이 천안시티FC를 응원해 주시는 것이 다른 팀 못지않다는 것, 특히 청주전 빗속에서도 응원해 주시는 것을 보고 크게 느꼈다. 그렇게 빗속에서도 저희 팀을 위해 응원해 주시는데 정말 죄송하다. 1라운드 로빈 정말 죄송스럽다. 주신 의견들도 참고하여 점점 더 좋아지는 모습 여러분께 보여드리겠다. 끝.